



DOMESTIC REPORT

영화 분야 크라우드펀딩 현황과 콘텐츠 자금 조달 방식의 진화

유은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미디어기획팀 과장)

2016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크라우드 펀딩은 디지털 전환기를 지나며 진화하고 있다. 지난 6월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등 정부는 디지털 자산 유통 및 발행을 위한 초석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다. 더욱이 작년에 금융권을 뜨겁게 달군 조각 투자뿐 아니라 토큰 증권 발행 등 신종 거래 형태가 올 초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진화하는 투자 형태가 미디어 콘텐츠 분야 가치 사슬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 들어가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저작권료가 내 손에! 매달 입금되니까 좋나?’

유명 가수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뮤직카우’는 2017년 출시된 서비스로 2023년 2월 기준 누적 회원 수 약 120만 명, 거래 규모 약 4,000억 원, 누적 투자 유치 금액 약 1,500억 원

을 달성했다. 이처럼 ‘뮤직카우’가 도입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조각 투자’라는 이름으로 소액 투자자들에게 각광받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¹⁾ 하지만 신종 투자 형태인 까닭에 금융 당국은 지난해 4월 ‘조각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²⁾

그림 1 뮤직카우 광고



| 출처: 뮤직카우 공식 인스타그램

논란의 중심이 됐던 ‘조각 투자’는 과연 무엇일까? 후술할 예정이나, ‘조각 투자’는 2인 이상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거나 거래하는 신종 투자 형태로 정의된다. 이 ‘조각 투자’는 지

난해 4월 말 금융위원회가 발 빠르게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면서, 마침내 새로운 투자 형태로 제도권에 편입되게 되었다.

1) [https://images.roa.ai/articles/2023/06/\[ROA\]E1%84%86%E1%85%B2%E1%84%8C%E1%85%B5%E1%86%A8%E1%84%8F%E1%85%A1%E1%84%8B%E1%85%AE_0619.pdf](https://images.roa.ai/articles/2023/06/[ROA]E1%84%86%E1%85%B2%E1%84%8C%E1%85%B5%E1%86%A8%E1%84%8F%E1%85%A1%E1%84%8B%E1%85%AE_0619.pdf)

2)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lId=55453&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C%A1%B0%EA%B0%81%ED%88%AC%EC%9E%90&pageIndex=1>

2. 정부의 움직임과 방송미디어 시장 현황

최근 몇 년 사이 조각 투자,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 등이 활발한 움직임을 띠고 있다. 특히 국회 입법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뿐 아니라, 올해 2월 정부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는 시장 변화와 흐름에 발맞추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신종 투자 형태를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노력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7월 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클라우드 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후 2016년 1월 25일부터 클라우드펀딩 중개를 수행하는 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②클라우드 펀딩 증권 모집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③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 ‘클라우드 펀딩법’이 시행되었다.

그림 2 클라우드 펀딩 개념 및 개념도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클라우드 펀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 이전부터 정부는 일반인뿐 아니라 기업 대상 순회 설명회를 시행했고, 그 후에도 클라우드 펀딩 100일 간담회(‘16.5월), 6개월 간담회(‘16.7월) 등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행 성과와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그렇다면, 현재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22.4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마련(‘23.2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3.6월) 및 시행(‘24.7

월 예상)’,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등으로 종합되는 정부의 움직임이 과연 방송미디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현재 방송미디어 시장은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로 콘텐츠 제작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방증하듯, 과기정통부도 지난 6월 15일 금융·산업계와 손잡고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약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과 함께 어려움에 직면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새롭게 등장한 조각투자, 토큰증권 발행 등의 투자 형태가 과연 제작비 조달이

어려운 콘텐츠 기업의 자금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펀딩의 개념과 종류, 영화 분야 클라우드 펀딩의 사례와 신종 투자 형태인 조각투자, 토큰증권 발행 체계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클라우드펀딩(Crowd-Funding)

클라우드 펀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 펀딩 업체를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십시일반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자금 모집 및 보상 방식에 따라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 네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①‘증권형’은 주식과 채권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며, 투자자는 배당금 등 투자 수익을 배분받는다. 주로 창업·벤처

기업에서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한다. 다음으로 ②‘대출형’은 대부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며, 투자자는 원리금을 받는다. 주로 개인이나 법인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③‘후원형’의 경우는 제품 판매 등으로 자금을 모집하며, 공연 티켓이나 캐릭터 상품 등 비금전적 보상을 받으며, 마지막 ④‘기부형’은 별다른 보상 없이 자금을 기부하는 형태이다. 후원형과 기부형은 주로 문화, 복지, 아이디어 상품 분야 등에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한다.

표 1 클라우드 펀딩 유형에 따른 비교

구분	자금모집 방식	보상형태	투자처	비고
증권형	주식·채권	투자수익 배분(배당금 등)	창업·벤처기업	수익형
대출형	대부	원리금 상환	개인·법인	
후원형	제품구매 등	비금전적 보상(리워드)	문화, 복지, 아이디어상품 등	비수익형
기부형	기부	무상		

출처: 금융위원회(2020). 창업·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클라우드펀딩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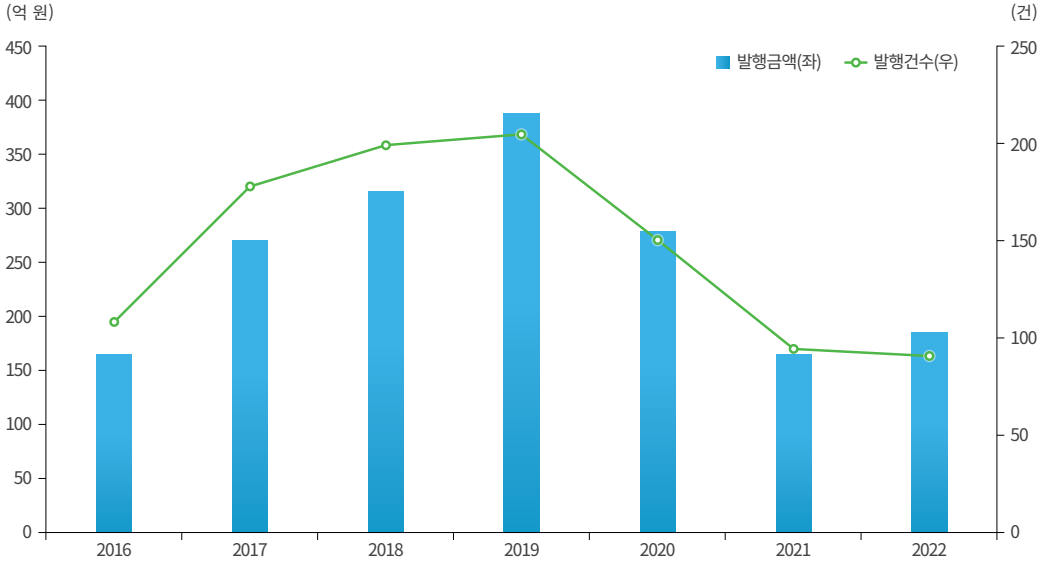
네 가지 클라우드 펀딩 형태 중 ‘증권형’은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하며, ‘대출형’의 경우에는 2019년 11월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을 따라야 하는데 이 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초로 제도권에 편입됐던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주요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조항 신설(2016년), ②클라우드 펀딩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 확대 등 참여 확대 방안 마련(~2018년),

③각종 규제 완화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2019년) 되었으며, ④2021년 이후에는 투자자 보호 조치가 더 강화되었다.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발행 규모는 2016년 166억 원에서 2019년 390억 원이 돼 2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나 이후에는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발행 건수도 비슷한 양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2016~2022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발행 실적 추이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3-1. 국내 최초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영화

2016년,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작비 펀딩을 진행하였는데 7거래일 만에 267명이 투자하여 목표 모집액 5억 원을 초과달성했다. 이 펀딩은 영화

<연평해전>, <귀향> 등 기존에 추진했던 기부(후원)형(표2참고) 크라우드 펀딩과는 달리, 수익을 목표로 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유형으로 진행된 최초의 영화이다.

표 2 <참고> 기부(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영화 예시

영화명	개봉 시기	내용	펀딩 금액	손익분기점 관객 수	누적 관객 수
연평해전 ³⁾	2015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 연평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제2연평해전' 소재 제작비 조달 등 문제로 7년간 완성 어려웠음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으로 후원(6만 명 참여) 	20억 원 (순제작비의 1/3)	300만 명	604만 명
귀향 ⁴⁾	2016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제작 기획부터 제작까지 14년 소요 문자, ARS 등을 통한 후원(7만 5천여 명 참여) 	12억 원 (순제작비의 50% ↑)	60만 명	358만 명

3) <https://www.donga.com/news/Entertainment/article/all/20150715/72475570/4>

4)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16/02/90741/>

발행된 증권은 ‘이익참가부사채’로, 목표 관객 수 500만 명 초과 시 수익이 나는 구조이다. 500만 명에서 매 10만 명 초과 시 수익률이 1% 증가하여 천만 관객 달성 시 최대 54.6%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 해당 영화는 관객 수가 705만에 이르러, 투자자는 원금과 함께 25.6%의 수익을 챙겨갔다.

해당 펀딩은 국내 첫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점 외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영화, 뮤지컬 등 콘텐츠 크라우드 펀딩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 크라우드 펀딩에 적합한 분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까닭에, 해당 펀딩 이후 기업은행에서는 문화 콘텐츠 분야 크라우드 펀딩 촉진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림 4 <인천상륙작전>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표 3 <인천상륙작전> 펀딩 수익률과 수익금

영화 인천상륙작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수익금 주요 사례

관객 수	수익률	투자원금에 따른 수익금 50만 원	투자원금에 따른 수익금 100만 원	투자원금에 따른 수익금 200만 원
500만 1명~510만 명	5.6%	2만 8,000원	5만 6,000원	11만 2,000원
600만 1명~610만 명	15.6%	7만 8,000원	15만 6,000원	31만 2,000원
700만 1명~710만 명	25.6%	12만 8,000원	25만 6,000원	51만 2,000원
800만 1명~810만 명	35.6%	17만 8,000원	35만 6,000원	71만 2,000원
900만 1명~910만 명	45.6%	22만 8,000원	45만 6,000원	91만 2,000원
990만 1명~1,000만 명	54.6%	27만 3,000원	54만 6,000원	109만 2,000원

* 관객 수가 천만 명 이상일 경우에도 투자수익률은 최대 54.6%로 고정, 법인세 등 차감 전 기준.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자료: IBK투자증권

3-2. 영화 분야 크라우드 펀딩의 대중화

영화 분야에 크라우드 펀딩 투자가 대중화된 시점은 2017년 무렵이다.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은 개봉 전에 수입 영화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었는데 목표액 1억 5,000만 원이 청약 개시 1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당시 <너의 이름은>은 일본·대만·중국 등 아시아 5개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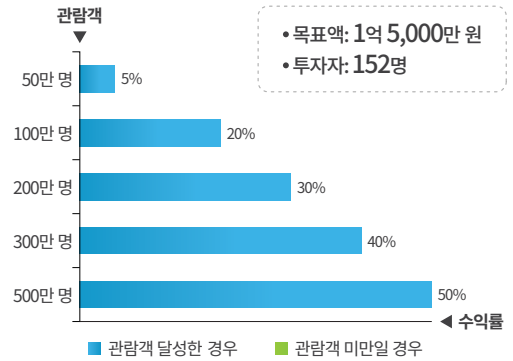
서 상영돼 흥행에 성공했는데, 이러한 점이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 중 하나로, 통상의 펀딩은 영화 제작 전에 이루어지지만 이 영화는 제작 이후에 진행되어 배급 및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너의 이름은>은 관객 수 300만 명을 넘겨, 펀딩에 참여한 152명의 투자자는 투자액의 40%를 수익으로 배분받았다.

그림 5 <너의 이름은> 포스터



출처: KMDb

그림 6 <너의 이름은> 크라우드 펀딩 수익률



출처: 중앙일보

3-3. 코로나 시기의 영화 크라우드 펀딩

2020년에는 송중기, 김태리 주연 영화 <승리호>의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루어진 <승리호> 크라우드 펀딩은 하루 만에 1억 원이 넘게 모였지만, 총 제작비 240억 원 투입과 손익분기점 관객 수 약 580만 명 등 손익 구조에 대한 불안감으로⁵⁾ 모집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금액 3억 원의 약 70%인 2억 2,000만 원에 펀딩이 종료되었다. 목표액의 80%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에 따라 투자자들이 펀딩한 금액은 전액 환불 처리되었다.

5) <https://www.gametoc.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55649>

그림 7 영화 <승리호> 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

반면, 2022년 6월 진행된 <범죄도시3> 펀딩은 투자 모집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975명의 투자자가 13억 원을 투자했다. 당초 목표액은 5억 원이었으나, 투자자들이 몰려서 2배 증액한 10억 원을 최종 목표 금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올해 5월 31일 개봉한 <범죄도시3>는 개봉 8일 만인 6월 7일 기준 누적 관객 수 626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손익분

표 4 관람객 수에 따른 투자 손익률

관람객 수	최종 투자자 손익률 (만기 기준)	관람객 수	최종 투자자 손익률 (만기 기준)
0명	-100%	500만 명	-11.3%
100만 명	-75.4%	580만 명	0.7%
200만 명	-59.4%	600만 명	2.3%
300만 명	-43.4%	700만 명	10.3%
400만 명	-27.4%	800만 명	18.3%

출처 : 중앙일보

기점 극장 관객 수 180만 명의 3배를 넘기는 수치이다. 해당 펀딩은 아직 최종 정산 전이지만, 과거 21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싱크홀>의 경우 손익분기점 200만 관객에 약 14%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범죄도시3>는 이를 상회하는 투자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 조각 투자(Fractional Investment)와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4-1. 조각 투자 정의, 투자 대상 및 구조

조각 투자는 여러 투자자가 자산의 소유권을 조각처럼 쪼개어 투자하는 투자 방식이다. 커피 한 잔 값으로 고가 자산이나 유명한 작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시드 머니가 없는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투자금은 법정통화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형태로도 가능하다.

조각 투자의 주요 대상은 부동산, 동산(미술품, 골동품 등), 지식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

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까지도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수익권은 민법상 공유권·조합 지분권·채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NFT 등의 형태로 지급되기도 한다.

유명한 조각 투자 플랫폼 중 하나는 '뮤직카우'인데, 조각 투자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뮤직카우'의 사업 구조를 살펴보자.

그림 8 (주)뮤직카우 사업 구조



출처: 금융위원회(2022).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먼저 ‘뮤직카우’는 그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이하 에셋)’을 통해, 음악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을 매입하여, 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저작권료 참여권)를 취득한다. 그 다음, ‘저작권료 참여권’에 따라 에셋에서 지급받을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권리인 ‘청구권’을 경매 방식으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분할 매각하고, 매각된 이 권리를 투자자가 매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경매로 취득한 ①‘청구권’으로부터 배분받은 저작권료와 ②‘청구권’ 처분 시 차익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사업 구조는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이며, 이것이 바로 ‘뮤직카우’가 말하는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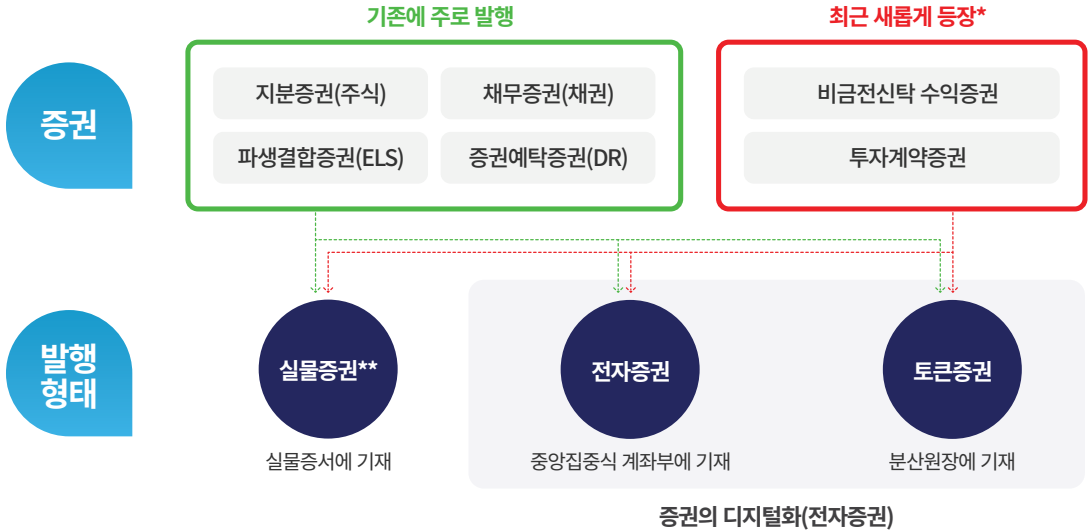
4-2. 토큰증권 정의 및 제도화 추진

2023년 2월,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발행(이하 STO)을 허용하기로 발표하였다. STO는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및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한다.

*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것

그림 9 토큰증권발행(STO)의 의미



토큰증권 발행 허용은 새로운 그릇(토큰증권)을 만들어 새롭게 등장한 증권에 맞는 발행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 비정형적 증권. 최근까지 거의 발행되거나 유통되지 않고 새롭게 등장 ** 전자증권 제도도입으로 거의 발행안함

자료: 금융위원회
출처: 비즈워치

그간 다소 경직된 시장 관행과 제도적 기반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했던 다양한 소액 투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각종 법 개정을 추

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정식 제도화 이전이라도 혁신 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⁶⁾을 통해 토큰증권 시장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 영화 분야 STO 적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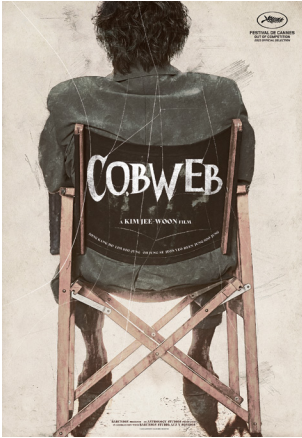
올해 하반기 개봉 예정인 영화 <거미집>은 세계 최초로 STO 기반 영화 자금 모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7일에 폐막한 ‘칸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바 있는 이 영화는 현재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상태로, 최종 결과에 따라 이르면 8월쯤 토큰

증권을 활용한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거미집>은 이미 제작 관련 투자가 완료되어 작년 6월에 촬영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향후 STO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극장 수익을 연간 2회 배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6) 금융위원회(2023).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12쪽

그림 10 영화 <거미집>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그림 11 영화 <거미집> 스틸컷



출처: 이데일리, 제공: 바른손

5. 마치며

현재까지 영화, 드라마 등 방송미디어 투자 시장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을 뿐 아니라, 고위험 고수익 분야인 까닭에 투자자들도 많은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기를 지나며 콘텐츠 제작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토권증권의 유통과 발행을 위한 법이 시행되고 STO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거대 OTT 기업들이 함부로 국내 제작사들을 하청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⁷⁾ 그

이유는 좋은 콘텐츠를 보유한 경우 제작사는 수익분배 구조에서 좀 더 자유롭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콘텐츠 중심의 투자는 콘텐츠 품질과 다양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한 혜택은 최종적으로 제작사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환원되어 방송미디어 산업 가치사슬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995>

참고문헌 Reference

- 금융위원회(2013).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2016) 문화콘텐츠 분야(영화 인천상륙작전) 최초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 탄생
- 금융위원회(2022).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 금융위원회(2022). 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김한솔(2016.7.). 증권형 ‘영화’ 크라우드펀딩의 현주소. <월간 한국영화>, 78호, 14-17.
- 금융위원회(2023).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블로그(2023.06.15.). 과기정통부, 금융·산업계와 손잡고 미디어·콘텐츠업계에 5천억원 투자 지원.
- 박창영(2020.08.20.). “그영화 봤어?”… “아니, 난 투자했어”, 매일경제.
- 중앙일보(2017.01.24.). ‘너의 이름은.’ 흥행 뒤엔 1억 5,000만원 모아준 152명
- 동아일보(2016.08.17.). ‘인천상륙작전’ 돌풍…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대박
- 쿠키뉴스(2023.06.09.). 대박친 ‘범죄도시3’ 조각투자...높아지는 ‘토큰증권’ 기대감.
- 이데일리(2023.03.20.). “STO로 송강호 영화 투자한다…‘제2 기생충’ 흥행 기대”.
- 비즈워치(2023.06.05.). 토큰증권, ‘투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을까.
- 씨씨티비뉴스(2019.06.05.). [컬럼] 영화산업과 블록체인 그리고 STO.
- 디지털투데이(2023.06.3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부터 시행
- 디지털투데이(2023.03.31.) STO 플레이어 인터뷰/④] 박재하 바른손랩스 이사 “콘텐츠 중심 상품으로 승부”